

연구노트

**공론조사의 숙의 유도 방법 :
한국 상황에서의 문제점 검토***

Is Information Distribution and Group Discussion Useful
for the Deliberative Poll in Korea?

조성겸** · 조은희***

Sung Kyum Cho · Eun Hee Cho

본 연구는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에서 숙의(deliberation)를 유도하는 방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공론조사의 문제점으로는 대표성 저하 문제가 주로 지적되어 왔고 공론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숙의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다. 즉 피시킨이 제안한 공론조사는 전문가 강연 및 인위적인 집단토론 방법을 이용했는데, 최근 이루어진 공론조사들은 이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수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론조사의 숙의 방법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특히 숙의 유도 방법으로서 전문가 강연 및 토론 등의 전통적인 방법이 한국 상황에서도 적합할지에 의문을 제기해 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2006년 2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한 '생명과학 인식에 대한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숙의 유도의 주요 방법인 집단토론은 보편성이 떨어지고, 표본의 대표성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공론조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토론 과정에의 참가만을 판단하여 숙의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연적인 숙의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주제어: 공론조사, 숙의, 여론조사, 토론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problems in applying the deliberative polling method within the Korean cultural context.

- * 본 논문은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ELSI 프로젝트(FG-05-44-01)>의 후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성겸.
E-mail: cnucho@hanmail.net
- ***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강사.

The deliberative polling method uses information distribution and group discussion to encourage the poll participants to be informed on and deliberate the issues, so that they may express their elaborate informed opinions when surveyed after discussion. One of the criticisms is that having all the poll participants assemble in one location may result in lower level of poll participation and accordingly a less representative sample.

Also, the assumption that group discussion will bring about deliberation has not been tested. Some research suggests that in certain Asian cultures, group discussion is not widely used for conflict resolution or consensus building. Thu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mere utilization of a group discussion method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at the participants have actually deliberated the issues.

A telephone survey of one thousand Koreans over the age of 20 was conducted.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group discussion is not a common way to discuss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 and would contribute to a low participation rate. It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at alternative deliberation methods need to be developed.

Key words: deliberative poll, deliberation, survey methodology, group discussion

I. 문제 제기

최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보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시민들은 인터넷이나 각종 방송매체에서 다양한 정보와 다량의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정책의 입안이나 결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동의나 지지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 따라서 과거에는 소수의 정치인·정책입안자나 전문가들이 결정했던 문제도 오늘날에는 소위 넷심(net心)을 포함한 시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이다.

공론조사는 참가자에게 해당 이슈에 대한 균형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의 기회를 준 후 여론을 묻는다는 점에서 이전의 조사와 크게 다르다. 이런 점에서 공론조사는 합리적인 여론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의 요건인 '토

론을 통한 시민의 참여' 가능성(심재웅 2003)을 높이는 조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공론조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실제 의도한 속의를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공론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공론조사의 표본이 속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표성을 상실한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어 왔다. 공론조사의 의도와 절차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론조사 방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공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여론조사에 비해 더 큰 조사비용만을 지출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공론조사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속의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론조사에서 대표적인 속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론이 한국적 상황에서 제대로 속의를 유발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공론조사의 장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다 효과적인 한국적 공론조사의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조망해 보고자 한다.

II. 공론조사의 방법과 한계

1. 공론조사의 방법

공론조사의 목적은 응답자들이 보통 조사와 다르게 이슈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한 후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론조사 과정에서는 응답자들이 이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를 얻고, 그들의 관점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Fishkin & Luskin 1999).

피시킨이 제안한 공론조사 절차는 통상 선정된 응답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2-3일 간 소집하여 10여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한 후,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과정을 갖는 이벤트를 여는 방식이다(조성점 외 2005). 이러한 속의 과정을 거친 후에 나타나는 의견은 전통적인 여론조사 방법으로 조사된 여론과 달리 정보에 기반한 의견(informed opinion)으로 간주된다.

공론조사는 1994년 4월 영국에서 '늘어나는 범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처음 실시됐다(심재웅 2003). 이어 1996년 미국 시카고대 국가여론연구센터(NORC: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가 주관한 국정제토론회(National Issues Convention)에서 정책, 경제, 가족 관련 이슈를 가지고 실시됐다(Fishkin & Luskin 1999). 1997년 영국에서는 총선거를 앞두고 광범위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공론조사(Sturgis 2003)가, 2000년 덴마크에서는 유로통화에 관한 공론조사가 실시됐다(Hansen 2004).

이 밖에 공론조사의 의도는 유지하면서 조사방법에 변형을 가한 공론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스티지(Sturgis 2003)의 연구가 그 예가 된다. 이들 연구는 토론을 통하여 숙의를 유도하는 대신에 이미 정보를 가진 집단의 의견을 토대로 정보에 기반한 의견을 추론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또한 스티지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 이벤트를 가지는 대신에 면접조사 직전에 10분 정도의 영화시청을 하는 것으로 숙의 절차를 대체하기도 했다(Sturgis & Schaw 2004).

국내에서는 재정경제부가 2004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재정경제부 2005). 그리고 같은 해에 우편을 이용한 정보제공 방식으로 행정도시 이전 등의 이슈에 대한 공론조사가 실시됐다.¹⁾ 또한 인터넷 패 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생명과학 이슈에 대한 공론조사가 실시했다(조성겸 외 2005).

한국에서 실시한 공론조사 가운데 재정경제부의 조사를 제외한 공론조사들은 피시킨식 공론조사 방식을 변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로 토론이 포함된 공론 이벤트를 제외시키는 등 공론화과정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러나 공론조사에서 핵심적으로 여겨지는 숙의 과정을 지나치게 간략화하고 정보제공에 치중함으로써 숙의를 통한 여론조사라는 공론조사의 기본 취지를 약화시키는 한계가 있다.

1) 현대리서치 추적 여론조사 / "수도이전 반대" 51% → 57.4%. (2004. 8. 9). 『동아일보』.

2. 공론조사의 한계

1) 참가자의 대표성 부족

지금까지 공론조사와 관련해 빈번히 지적된 것은 대표성 저하의 문제이다. 공론조사는 속의와 대표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지만, 한 장소에 모여 정보제공과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응답자 탈락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대표성 유지가 문제가 된다. 1996년 미국 국가여론연구센터(NORC)가 주관한 국정의 제도론회(NIC)에서는 추출된 유효표본인 1,278 가구 가운데 72%가 사전 1차 조사에 응답하였지만 최종 속의 절차에서는 36%인 460 가구만이 참가하였다(Fishkin & Luskin 1999). 영국에서 1997년 실시된 공론조사에서도 처음 추출된 1,210명 중에서 64%가 1차 조사에 응하였고, 속의 절차에서는 15%인 275명이 참가하였다(Sturgis 2003). 2000년 덴마크에서 실시된 유로통화에 대한 공론조사에서는 2,843명 중에서 60%가 1차 조사에 응하였고, 12%만이 공론 조사를 마쳤다(Hansen & Andersen 2004). 이처럼 공론조사는 일반적인 여론 조사에 비하여 중도 탈락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국내에서 실시된 공론조사에서도 높은 탈락률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리서치가 2004년 '수도이전' 이슈를 가지고 우편을 이용해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 사이에 2,000명이었던 패널이 745명으로 감소해 탈락률은 63%에 이르렀다. ELSI 프로젝트 팀이 2004년 인터넷 패널을 이용하여 2004년 9월(1차), 2004년 11월(2차), 2005년 7월(3차) 등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공론조사를 보면, 1차 조사부터 3차 조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패널 탈락률이 74.5%로 나타났다(조성겸 외 2005). 위 조사들이 우편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집회형식 토론과정에서의 탈락률도 적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탈락의 문제는 탈락률과 함께 발생하는 응답자의 대표성 저하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센과 앤더슨(Hansen & Anderson 2004)의 분석결과를 보면 응답자 탈락률은 80% 정도로 높았지만, 1차 전화 인터뷰 응답자(n=1,702)와 공론조사 최종 참여자(n=364) 사이의 인구학적 속성이나 기본적인 정치성

〈표 1〉 덴마크 공론조사에서 1차 조사와 최종조사 참여자의 특성 비교
(Hansen & Anderson 2004)

		1차 응답자(%)	최종 참여자(%)
성	남	58	49
	여	42	51
연령	40세 이하	40	43
	41세 이상	60	57
교육	대졸 미만	65	71
	대졸 이상	35	29
정당가입	유	10	9
	무	90	91
투표참여의사	있음	45	39
	없음	37	37
	결정안함	18	24
N		1,702	364

항 등은 처음 추출된 집단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표 1〉). 이러한 점은 유럽의 경우 표본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대표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럽의 경우와 달리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응답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인터넷 패널을 이용하여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를 참고하면(조성겸 외 2005), 공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어서 전체 집단과 다른 특성을 가진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2004년 9월(1차), 2004년 11월(2차), 2005년 7월(3차) 등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 가운데, 2차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1차 응답자 2,805명과 3차 최종 조사에 응한 783명의 인구학적 특성과 이슈에 대한 태도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인구학적 특성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슈에 대한 태도 특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를 공론조사 과정에서의 속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속의 절차 이후 생명과학 이슈에 대한

〈표 2〉 한국 인터넷 공론조사에서 1차 희망자와 최종 참여자의 특성 비교

		1차 응답자(%)	최종 참여자(%)
성	남	61	58
	여	39	42
연령	30세 이하	77	80
	31세 이상	23	20
교육	대졸 미만	13	14
	대졸 이상	87	86
생명과학관심	유	86	94
배아복제유용성	있음	44	73
N		2,805	783

가시적인 의견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조성검 외 2005), 이슈에 대한 특정 태도를 가진 사람이 주로 3차 조사에 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결과는 한국의 응답자 탈락률은 유럽과 달리 조사 대표성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공론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답자 탈락률에 대한 문제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경우 더욱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속의 절차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론조사에 대해서는 대표성 부족 문제가 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작 공론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속의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적었다. 지금까지 공론조사에서는 전문가 강연 및 소집단 토론을 속의 유도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해 왔다. 이 중에서 특히 토론이 과연 속의를 유발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론이 정보에 기반한 의견 형성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이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불어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을 정도로 토론문화에 친숙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토론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문화의 특성에 따라 언어 표현 방식을 구분한 대표적인 논의는 홀(Hall)의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에 대한 것인데, 이

두 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언어의 표현형태가 '직접언어 표현방식'과 '간접언어 표현방식'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Hall 1976; 박재현 2004). 고맥락 문화의 국가로는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베트남 등을, 저맥락 문화의 국가로는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자기표현', '언어적 유창성', '웅변' 등에 가치를 두면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관점을 타인이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고맥락 문화권의 경우 상호작용에서 침묵을 유지하거나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과 함께 '조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이때 사람들은 핵심을 돌려 말하고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청(Chung)도 홀의 논의를 발전시켜 두 문화의 특징을 비교했는데, 저맥락 문화권의 경우 직접적인 의사소통 형태를 통하여 의미를 명백히 드러내며, 생각을 표현하는 데 '논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고맥락 문화의 경우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으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감정'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저맥락 문화는 정교하게 구조화된 메시지, 상세한 기술, 단어나 기호에 대한 강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맥락 문화는 단순하고 모호하며 비맥락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Chung 1992; 박재현 2004). 한국 TV 토론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박재현 2004) 논리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 타당성이 약한 논거의 사용 경향, 개인적인 권력을 사용하는 경향, 내용을 비판하기보다는 사람을 비판하는 경향, 사적 의견과 공적 견해의 혼동 경향, 그리고 토론 규칙의 경시 경향 등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 등 고맥락 문화권의 경우 언어표현 방식의 특성 상 토론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자기 표현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강태원 외(2001)는 한국에서 토론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보았다. '90년대 이후에는 텔레비전 등과 같은 대중 매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통해 정치, 사회, 경제, 교육 현안에 대한 각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교육에서 토론 교육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토론식 수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체계적으로 토론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토론 활용도가 낮은 응답자들에게 토론을 통한 속의를 기대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성향이 있는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조와 순응을 요구할 수 있다. 한센(Hansen 2004)이 덴마크에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속의 절차의 중요한 단계인 집단토론 과정에서 순응(conformity) 현상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속의를 유도하기 위한 집단토론이 참여자 개인의 속의와 독립된 판단을 촉진하기보다는 집단 분위기에 대한 동조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참가자들은 타인의 성향만 확인하고 본인의 태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타인의 태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속의나 의견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이와 달리 본인의 태도는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17대 총선 출구조사에서 50~6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응답 거부율도 높고, 전화조사에 비해 한나라당 지지도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조성겸 2004). 이러한 결과는 50~60대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본인의 의사를 드러내거나 변화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특성이 토론에 반영될 경우, 토론 참여자들은 전체적인 토론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데 치중하고, 실질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정도나 토론 참여로 인한 태도변화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토론이 의견수렴과 속의의 과정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상황에서 집단토론이 속의방법으로써 보편성을 갖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3) 실용성

공론조사는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다른 조사방법에 비해 많다는 점도 한계가 된다. 응답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2-3일 정도의 속의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1992년 대선에서 시도했으나 준비와 자금부족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심재웅 2003). 덴마크에서 실시된 유로 통화 관련 공론조사의 경우(Hansen & Andersen 2004) 최초 모집 인터뷰가 8월1일부터 2,8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공론조사가 실시된 12월 16일까지는 100일 이상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정보제공 이벤트와 응답자간의 토론이 있었으며, 참여 확인 문의 등에 유선전화 작업까지 추가되는 등 비용과 시간 면에서 기존 유선전화 조사방법에 비해 소요되는 부담이 크다.

일례로 재정경제부는 2005년 '8.31 부동산 정책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진행 절차는 첫째, 511명에게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토론회를 개최해 분임토론에 참여하고 전문가 토론을 듣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486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해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 행사에는 511명 가운데 47명만 참가했으며, 이외 464명은 토론회 동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공론조사의 실행예산은 1억8천만 원으로 기록됐다. 토론회 행사에 47명이 참석했는데, 이보다 많은 인원을 토론회 행사에 참석토록 할 경우 전체 실행예산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조사비용은 비슷한 숫자의 표본으로 실시하는 일반 유선전화 조사에 비해 높은 규모이다²⁾.

결과적으로 공론조사의 실행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은 토론에 따른 조사비용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공론조사들이 이러한 조사비용 문제 때문에 토론을 간략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과정에서 토론의 속의 유도 효과는 더욱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토론이 속의를 유도하는 유용한 방법인지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론조사는 기존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려 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공론조사 방법인 피시킨의 방법은 전문가 강연 및 소집단 토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벤트는 공론조사의 핵심적 방법이면서도, 공론조사의 광범위

2) 공론조사 백서에는 예산 문제를 “공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후 재경부의 기존 홍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1억 8천만 원 가량의 실행예산을 조달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로 적고 있다(재정경제부(2005), 『8.31 부동산 정책 공론조사』).

한 활용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즉, 공론조사 방법은 응답 탈락이나 비용, 소요 시간 등의 점에서 조사 실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주로 응답자를 한 곳에 모아 토론을 벌이는 토론 이벤트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시킨은 토론이라는 절차를 통해 일반인이 균형된 정보를 갖게 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실제 토론을 통해 개개인에게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검증된 바 없고, 정보화(informed)나 속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나 척도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포함된 고맥락 문화에서는 유럽 등으로 대표되는 저맥락 문화권에 비해 토론 활용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결과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토론의 효과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토론이 한국 문화에서 속의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둘째, 공론조사 과정에서 토론의 수행이 표본의 대표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 보았다. 만약 특정 성향이나 태도를 가진 집단만이 토론을 선호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다면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시민들의 토론 참여 의사와 이슈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연구문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토론은 속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활용되는가?
- 연구문제 2: 속의 방법으로서 토론은 표본의 대표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본 연구를 위해 2006년 2월 ‘생명과학 인식에 대한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그리고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응답자들의 토론 성향 등을 조사했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는 2005년 이전에도 지속적인 미디어의 주목을 받아 왔으나, 2005년 5월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배양성공’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2005년

11월 MBC PD 수첩 방송과 함께 연구과정과 성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2005년 11월 이후 즐기세포와 관련한 미디어의 보도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³⁾,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토론 프로그램,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보도, 네티즌들의 댓글과 논쟁, 다양한 영역에서의 패러디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즉, 이전의 과학 논쟁이 주로 미디어와 전문가들의 논쟁으로 진행됐다면, 즐기세포 논쟁은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 대화와 토론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황우석 박사와 관련한 즐기세포 이슈는 일반 시민의 토론의 활용 정도를 자연스런 상황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문을 통해 즐기세포 이슈와 관련한 일반시민들의 토론의 빈도, 토론의 주요 대상, 토론의 진행 방식, 토론결론의 도출 경향, 그리고 선호하는 정보화 방식 등을 질문하여 시민들의 전반적인 토론 활용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세부적인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2006년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지역, 성, 연령별 할당추출로 선정했으며, 조사는 현대리서치가 맡았다.

IV. 연구결과

1. 토론의 보편성

시민들은 숙의를 위해 토론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을까? 한국 등 고맥락 문화권에서는 토론의 과정에서 침묵하고 핵심을 돌려 말하며 조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Hall 1976), 이에 비추어 보면 토론이 보편적으로 이용된다고 예측하기 어렵다. 토론이 활용되

3) 2000년부터 2006년2월28일까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를 KINDS에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제목키워드 분석, 사용키워드: '즐기세포 or 배아복제 or 황우석') 게재기사 건수가 2000년 19건, 2001년 36건, 2002년 31건, 2003년 14건, 2004년 116건, 2005년 5월 55건으로 증가추세이다가, 최근(2005.11.23-2006.2.28)에는 35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 3〉 토론이 포함된 공론조사 참여 의사 (단위: %, n=1,000)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	60.4
참여할 것 같다	39.6

〈표 4〉 참여가 꺼려지는 이유 (단위: %, n=398)

토론하기 싫다	21.4
논란 이슈에 끼기 싫다	20.4
행사 같은 데 나가기 싫다	12.3
기타	46.0

기 위해서는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동조의 의사 혹은 반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대화와 토론이 빈번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토론이 포함된 공론조사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60.4%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표 3〉). 또한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65.9%는 ‘바쁘지 않아도 참여하기 싫다’고 답했고, ‘바빠서 참여할 수 없다’는 사람은 34.1%였다.

참여를 꺼리는 이유를 ‘바쁘지 않아도 참여하기 싫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표 4〉) ‘토론하기 싫어서(21.4%)’라고 답하는 응답자가 ‘기타(46.0%)’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논란 이슈에 끼기 싫다(20.4%)’, ‘행사 같은 데 나가기 싫다(12.3%)’는 응답이 나타났다. 즉 시민들은 조사 회피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조사 회피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토론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민들의 평소 생활에서 토론이 어느 정도 활발히 이뤄지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즐기세포 연구나 황우석 박사’에 대한 대화나 토론의 빈도와 형태를 살펴보았다(〈표 5〉).

〈표 5〉 황우석 박사 이슈에 대한 대화나 토론의 정도 (단위: %, n=1,000)

	가정에서	주변사람과
매우 자주 했다	11.8	13.7
가끔 했다	42.9	58.5
별로 안 했다	19.2	17.2
전혀 안 했다	26.1	10.7

분석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3개월 이내에 위의 이슈를 가지고 가정에서 대화나 토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자주했다 11.8%, 가끔 했다 42.9%). 가족 이외의 주변사람과 위 이슈를 가지고 대화한 경우는 오히려 더 많아 72.2%가 대화나 토론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매우 자주 13.7%, 가끔 58.5%). 또한 대화나 토론의 결과는 ‘양편의 의견이나 주장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편’이었다는 응답이 69.8%로 높았고, ‘대화로 합의와 결론에 도달하는 편’이었다는 응답은 25.5%로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비록 이슈에 대한 대화나 토론이 일어나고 있으나 그 방식 면에서 합의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공론조사의 토론 방식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토론의 대표성

위에서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토론이 포함된 공론조사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대화·토론의 진행 방식이 일방적이라는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공론조사에의 참여 의사가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공론조사 과정에서 토론 절차가 표본의 대표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토론 참여 의사와 이슈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았다. 만약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인구학적 속성도 유사하고 응답 특성에서도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론조사의 응답 결과도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유럽 조사의 경우(Hansen &

〈표 6〉 참여 의사 여부에 따른 생명과학 관심과 전망 (단위: %)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n	χ^2	df	p
생명과학 관심도: 관심있는 편	81.8	64.7	715	42.669	3	< .001
생명과학 전망: 긍정적인 편	43.4	33.8	376	24.393	3	< .001

Andersen 2004)에는 표본의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응답자들의 대표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론의 대표성 분석은 토론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인구학적 특성, 이슈에 대한 관심과 태도, 정보습득 방식, 그리고 기타 성향 등이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이슈에 대한 관심 및 전망과 이슈별 태도

공론조사에의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이슈에 대한 관심과 태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본 결과, ‘참여하겠다’는 응답자의 경우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81.8% 이었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경우 이보다 낮은 64.7%로 나타났다. 생명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참여가능 응답자들은 43.4%가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본 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33.8%로 긍정적인 측면을 높게 보지 않았다.

이슈에 대한 태도의 경우(〈표 7〉), ‘줄기세포 유용성’에 대해서는 ‘참여하겠다’는 응답자의 88.1%가 ‘유용한 편’으로 본 반면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76.7%가 ‘유용한 편’이라고 답했다. 유전자 DB 기술의 유용성을 질문한 결과 ‘참여하겠다’는 응답자 68.4%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56.3%가 유용한 편이라고 밝혔다.

‘범죄자DB 구축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론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에 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

〈표 7〉 참여 의사 여부에 따른 이슈 태도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n	χ^2	df	p
즐기세포연구: 유용한 편	88.1	76.7	812	21.465	2	< .001
유전자DB기술: 유용한 편	68.4	56.3	611	14.844	2	< .005
범죄자DB구축: 찬성하는 편	79.3	77.6	783	5.597	2	< .1

다. 그러나 〈표 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범죄자 DB 구축에 대해서도 역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자 그룹에서 이슈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약간씩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볼 때 공론조사에 참여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생명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술의 유용성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생명과학 기술의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정보 습득 방식

참여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문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매체 접촉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오프라인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경우 ‘일주일에 3~4회 이상 읽는다’는 사람이 67.2%(참여하겠다)와 51.9%(참여하지 않겠다)로 차이가 나타났다. ‘거의 매일 읽는다’는 사람도 48.0%와 33.9%로 참여 의사 여부 간에 15%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의 경우도 참여 희망자의 55.3%가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밝혀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47.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참여 의사 여부에 따른 매체 이용률 (단위: %)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n	χ^2	df	p
일간신문: 일주일 3-4회 이상	67.2	52.0	580	26.270	2	< .001
인터넷 이용: 거의 매일	55.3	47.0	503	8.481	3	< .05

<표 9> 참여 의사 여부에 따른 정치 성향 및 자기 정보 제공 의사 비교 (단위:%)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n	χ^2	df	p
정치성향: 진보적인 편	35.1	23.2	279	30.449	3	<.001
본인 유전정보 제공:제공희망	67.9	45.7	545	48.430	2	<.001

3) 기타 성향

(1) 정치성향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들은 본인 스스로를 진보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35.1%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2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그러나 중도적이거나 보수적인 것에 대한 자기 판단은 참여 의사 여부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 자신의 정치성향을 ‘모르겠다’는 응답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참여하겠다 5.6%, 참여하지 않겠다 14.4%).

(2) 자기 정보 제공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본인의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이들은 ‘담당 의사가 유전정보를 의학용으로 연구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67.9%가 ‘제공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기꺼이 제공 26.0%, 웬만하면 제공 41.9%). 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경우 45.7%만이 ‘제공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기꺼이 제공 11.3%, 웬만하면 제공 34.4%).

(3) 생명윤리

‘참여하겠다’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생명윤리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여하겠다’는 응답자의 경우 ‘사람의 난자를 이용해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규정만 지켜지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편이었고(참여하겠다 31.8%, 참여하지 않겠다 24.8%), ‘참여

〈표 10〉 참여 의사 여부에 따른 생명윤리 성향 비교 (단위: %)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n	χ^2	df	p
남자 이용 연구: 허용가능	90.9	83.6	865	11.363	2	<.005
인간배아 이용 연구: 허용가능	86.1	74.3	790	20.187	2	<.001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났다(참여하겠다 6.3%, 참여하지 않겠다 12.4%).

‘인간 배아도 생명이므로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들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참여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생명 윤리관에 차이가 있으며, 참여를 원치 않는 응답자들이 남자나 배아 관리에 좀 더 엄격한 관리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론조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은 본인 정보 제공에 대해 개방적이고, 토론이 활발한 편이며, 생명 윤리 기준 적용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관대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즐기세포나 황우석 박사에 관련한 대화나 토론을 비교적 활발히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토론의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은 미숙한 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토론이 포함된 공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60%의 응답자들은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특정한 이유 없어도 공론조사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과 같이 토론에의 참여 의사가 낮은 상태에서, 공론조사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이슈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정치·윤리·토론성향, 그리고 매체 이용 성향 등에서 전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참여 의사 여부에 따른 성별 비교 (단위: %)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남	60.1	40.1
여	39.9	59.9

(4) 인구학적 특성

공론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성별로 볼 때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남성의 경우 60.1%가 참여 의사를 밝힌 반면 여성은 39.9%가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밖의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학력, 종교 등과 참여 의사와는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공론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만 조사할 경우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공론조사에의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이 특정한 연령, 학력, 직업, 종교를 가진 사람일 경우 오히려 공론조사 후 가중치 등을 통해 자료를 보완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 참여 희망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는 인구학적 속성 차이가 아닌 가치관이나 태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자료 보정이 더욱 위험하게 된다.

3. 논의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민들에게는 토론을 꺼리는 태도가 있으며, 공론 조사 참가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정치성향, 윤리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론 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표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론조사의 ‘토론’을 대처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으로 응답자들의 정보 습득 선호 경향을 살펴 보았다(〈표 12〉).

‘토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받고 귀하의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방

〈표 12〉 토론 이외 선호하는 공론조사 방법

(단위: %, n=1,000)

인쇄물을 받아 보고 내 생각을 제시하는 방법	29.4
TV토론을 보고 내 생각을 제시하는 방법	26.2
인터넷 정보를 보고 내 생각을 제시하는 방법	23.2
개인 면접원의 설명을 듣고 내 생각을 제시하는 방법	6.3
기타/ 모르겠다	14.9

법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면대면을 통한 정보 습득보다는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습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볼 때 '인쇄물을 받아 보고 생각을 제시하겠다'는 응답자가 29.4%였으며, 'TV토론을 보고 생각을 제시하겠다'는 응답자가 26.2%, '인터넷 정보를 보고 생각을 제시하겠다'는 응답자가 23.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보 습득 방식에 대해서는 연령, 종교, 학력, 정치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의 경우 인터넷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고, 40대는 인쇄물과 TV토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별로 볼 때 종교가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인터넷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학력별로 볼 때 중졸 이하 응답자는 TV토론을, 고졸 응답자는 인쇄물을, 대재 이상 응답자는 인터넷을 정보 습득 방식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성향으로 볼 때 매우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인쇄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개인 면접원의 설명을 듣고 내 생각을 제시하겠다'는 응답은 6.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민들은 토론에 참여하거나 개인 면접원을 만나는 등 면대면 상황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하거나 토론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생각을 밝히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토론보다는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 다른 미디어와 방법을 이용한 공론조사 방법이 대안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실제 응답자들은 즐기세포 연구 등 생명과학에 대한 정보를 주로 TV나 라디오, 인터넷, 그리고 신문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과학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TV나 라디오 47.5%, 인터넷 23.8%,

〈표 13〉 생명과학 정보 습득 채널

(단위: %, n=1,000)

TV나 라디오	47.5
인터넷	23.8
신문	22.4
책, 잡지	2.7
기타(주위 사람들)	3.6

신문 22.4%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얻는다는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표 13〉). 또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50.3%)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답하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사용한다는 응답자도 18.0%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 캠페인이 시민의 속의 절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디어 캠페인과 병행해서 필요한 것은 주변사람과 자연스런 토론을 촉진시킬 수 있는 토론 촉진 활동이다. 토론을 꺼리는 사람에게 인위적인 토론을 요구하는 기존 공론조사에 비해서 주변 사람과의 자연스런 대화·토론을 통해 본인 스스로 속의 절차에 이르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V. 결론

공론조사는 이슈에 대한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고 속의의 기회를 준 후 여론을 묻는다는 점에서 이전의 여론조사 방식과 크게 다르다. 따라서 공론조사의 응답자들은 무작위 추출된 일반인이 아닌, 균형된 정보를 제공받아 정보에 기반한 의견을 갖는다.

따라서 공론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전체 집단을 대표할 만한 응답자들이 균형된 정보를 습득하고 속의하여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점이다. 최근 공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속의를 위해 채택하는 방식은 전문가 강연과 토론이다. 피시किन이 제안한 이 방식에서는 응답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토론을 벌인 후 조사에 응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공론조사 이벤트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응답자가 속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내

용적인 측면에는 속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토론이 피시킨이 원래 실시했던 형태보다 간략화된 형태로 이용되었다. 그런 면에서 속의 방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토론이 한국적 상황에서 과연 효과적인 속의 방법인가?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토론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경우 토론이 포함된 이벤트가 공론조사의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즐기세포 이슈와 관련한 시민들의 토론 이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황우석 박사와 관련한 즐기세포 이슈는 과학관련 이슈로는 매우 드물게 미디어나 전문가의 논쟁만이 아닌 일반인들의 대화나 토론으로까지 확대된 사례로서 토론의 이용 정도를 살펴보기에 적절하다.

조사 결과 속의 절차로써 토론의 보편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이 포함된 공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평소 즐기세포 이슈에 대해 주위 사람과 대화나 토론을 많이 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53.8%도 특별히 바쁜 일이 없어도 해당 공론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인위적인 면대면 토론을 부자연스러워 하는 현상이 분석됐다. 즉 토론의 절차는 일반 시민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공론조사 과정에서 토론 절차가 표본의 대표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토론이 포함된 공론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인구학적 속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학이슈에 태도, 생명윤리에 대한 태도, 정치적 태도 등 다양한 인식과 가치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론조사 참여 여부는 본인의 기존 태도나 가치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론조사에 응하겠다는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벌일 경우 조사의 대표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인구학적 속성에서는 대표성을 획득한 듯 보이지만, 실제 이슈 태도에 있어서는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토론에 대한 활용도가 낮고, 토론 희망자의 태도와 가치관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토론이 포함된 공론조사의 시행은 보편성과 대표성 모두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볼 때 토론의 속의 효과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에서 공론조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토론 과정의 참가 여부를 가지고 속의가 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연적인 속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시민들은 토론보다 인쇄물, TV토론, 인터넷 정보 등을 선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공론조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속의 및 자연적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실시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공론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속의 절차를 개발하고 이를 이슈 특성, 조사 대상, 조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태완·김대용·이상철·허경호. 2001.《토론의 방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재현. 2004. “한국의 토론 문화와 토론 교육.” 《국어교육학연구》제19집.
- 심재웅. 2003. “공론조사의 소개 및 그 실행의 장단점과 문제점.” 《<코소마—한국조사연구학회 공동 세미나>》.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
- 조성겸. 2004. “선거여론조사의 유용성.”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조사연구학회.
- 조성겸·윤정로·조은희. 2005. “공론조사 방법을 이용한 생명과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ELSI 연구>》 3(2): 83-102.
- 재정경제부. 2005. 《<8.31 부동산 정책 공론조사>》.
- Chung, J. 1992. “*Electronic mail usage in low-context and high-context cultur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Entman, R. M. and S. Herbst. 2001. “Reframing Public Opinion as We Have Known It.” In *Mediated Politics: Communication in the Future of Democracy*. W. L. Bennett and R. M. Entman.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03-225.
- Hall, E. T. 1976. *Beyond Culture*, NY : Anchor.
- Hansen, K. M. 2004. *Deliberative Democracy and Opinion Formation*. University Press of Southern Denmark.
- Fishkin, James S. and Robert C. Luskin 1999. “Bringing Deliberation to the Democratic Dialogue.” In *The poll With a Human Face*. McCombs, Maxwell and Reynolds, Amy. (Ed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 3-38.
- Sturgis, P. 2003. “Knowledge and Collective Preferences: A Comparison of Two Approaches to Estimating the Opinions of a Better Informed Public.”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31(4).
- Sturgis, P., H. Cooper, and C. Fife-Schaw. 2004. “CAPI-based Information Intervention (Cli): A new way of estimating informed opinion,”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 Methodology, Amsterdam, 16-20 August 2004.
- Hansen, Kasper M. and Vibeke Normann Andersen. 2004.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deliberative poll on the Euro.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7(3).